

신채호 아나키즘의 문학적 형상화

-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顛倒)*

서은선** · 윤 일*** · 남송우**** · 손동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고토쿠 슈스이의 『기독교말살론』과 |
| II. 아나키즘과 신채호의 혁명 담론 | 용(龍) 이미지 |
| III.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
(顛倒) | V. 마무리 |

I. 머리말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는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언론인이자 문필가이면서 역사학자, 아나키스트로 생애를 살기도 했다. 그는 1900년대에는 사회진화론을 사상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한국이 부국강병하여 우승열패의 세계에서 자강(自強)할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A00150)

** 부경대학교 동북아시아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저자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저자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공동저자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계몽적 글쓰기에 주력하였다. 일제의 한국 강점(1910년)이후에는 상고사 연구, 낭가(郎家)사상 연구에 몰입하였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대동사상과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서 출발한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국가주의를 버리고, 민중혁명에 의한 반제국주의 운동에 나섰다.¹⁾

신채호가 아나키즘 사상을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논설 「조선혁명선언」(1923년)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아나키즘 수용에 영향을 미친 저술은 일본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의 논설집 『장광설』(1902년)이라고 한다.²⁾ 또한 그는 1910년 중국 망명 이후에는 중국 아나

1) 사회진화론에 관해서는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 아카데미, 1996.

아나키즘에 관해서는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2.

신채호의 아나키즘 수용에 관해서는 박준건, 「해방전 일본을 통한 서양사회사상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16집1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신채호의 아나키즘 사상에 관해서는 이호룡,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제177집, 2000.12.

신채호와 고토쿠 슈스이의 사상 비교 연구에 관해서는 줄고인.

윤 일·남송우·손동주·서은선, 「근대 일본과 한국의 사회진화론과 아나키즘 연구-고토쿠 슈스이와 신채호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3.

신채호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는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신채호의 낭가사상에 관해서는 이동순, 「단재소설에 나타난 낭가사상」, 『어문논총』 12집 1권, 경북어문학회, 1978.

신채호의 저술 전반적 연구는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신채호의 생애에 관해서는 임중빈, 『단재 신채호 그 생애와 정신』, 명지사, 1987 등을 참고.

2) 신채호는 “고토쿠의 저서가 가장 합리한 줄 알았다”고 위폐 사건으로 일경에게 체포되어 공판정에 섰을 때, 증언한 바가 있다. 신채호, 『단재 신채호전집』(개정판) 하권, 형설출판사, 1995, 431쪽.

키스트 유사복(劉思復)의 논설을 열심히 읽었고, 고토쿠 슈스이의 문학 평론『기독교말살론(基督抹殺論)』에도 공명했다고 한다.³⁾ 고토쿠는 『장광설』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러시아 허무주의자와 연관된 암살 행위에 명분을 준 바 있었는데, 신채호는 암살 행위를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암살 행위로부터 발전한 민중 폭력혁명론을 일본 제국주의 타도 방법론으로 내세우면서, 아나키즘 수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채호는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1928년)에서 전제왕권이나 일본 제국주의 뿐 아니라 종교·사상까지 지배 이데올로기로 여겨, 그들이 민중혁명으로 몰락하는 내용을 문학적인 비유로 형상화하였다. 이 소설은 그가 생애 후기 수용한 아나키즘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을 뿐 아니라, 미학적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채호가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아나키즘과 혁명 담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서술 방식을 고찰하되, 하늘과 용(龍)이미지의 전도(顛倒)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고토쿠 슈스이가 문학 평론인 『기독교말살론』에서 용에 대해 서술한 부분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II. 아나키즘과 신채호의 혁명 담론

아나키즘 사상은 서양에서 크로포트킨(Pjotr Aljeksjejevich Kropotkin, 1842-1921)의 상호부조론으로 출발하였다. 사회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인류의 적자생존과 경쟁의 문제를 추출한 데 비해, 크

3) 박준건, 앞의 논문, 351쪽.

로포트킨은 “인간 사회든 동물 사회든 간에 사회부조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모든 사회제도 이면에서 상호부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화론에서 상호부조를 추출하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상호부조론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원리를 부정하였으며⁵⁾, 결과적으로 사회진화론의 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 국가가 사회진화론을 토대로 적자생존, 경쟁의 원리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거대 조직에 의한 정치제도를 추구했다면, 아나키즘은 상호부조론에서 출발했듯이,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여 원시공산사회처럼 살아 갈 것을 추구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나키스트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과 모든 사회제도·국가를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의 연합에 의해 운영되는 무권력·무지배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⁶⁾ 즉 정부나 국가가 아닌 소규모의 공동체 조직으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 비해서 공산주의는 철저한 조직규율과 중앙집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하였다.⁷⁾

아나키즘 사상의 요체는 이러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유입 과정에서 차이가 나면서 그 핵심 사상의 수용도 조금씩 달랐다. 중국의 경우 프랑스 유학생 출신들에 의해 크로포트킨 사상이 바로 유입되었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수용은 사회민주주의자이던 고토쿠 슈스이가 1906년 6월 미국 방문 이후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당정치, 의회제도가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직접 행동’을 주창하고, 아나키스트임을 선언한 데서 비롯하였다. ‘직접 행동’ 강령은 일본의 아나키즘을 노동조합 운동인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이끌게 되었다.⁸⁾

4)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 연구』 제39집, 중국사학회, 2000, 5.12. 235쪽. 참고

5)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2, 92-93쪽.

6) 이호룡, 위의 책, 198쪽.

7) 이호룡, 위의 책, 214쪽.

8)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31-33쪽.

윤 일·남송우·손동주·서은선, 앞의 논문, 86-87쪽 참고.

신채호의 경우 1910년부터 중국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기반이 전혀 없었고, 또 그 시절 한국은 산업혁명을 완료한 일본과는 달리 근대 산업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노동 문제가 별 대두되지 않아, 그는 아나코 생디칼리즘(노동조합적 아나키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채호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즈음해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 공명하면서도, 러시아 허무주의자로부터 출발한 암살 행위를 아나키즘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⁹⁾

그는 반(反)제국주의라는 명분으로 암살 행위를 정당화하였고, 곧이어 민중혁명론으로 발전시켰다. 이 민중혁명론이 그의 아나키즘 사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민중혁명론은 「조선혁명선언」(1923년)에서 선을 보이는데, 정리하면, 우선 일본 제국주의는 강도(強盜)정치이며, 조선 민족 생존의 적이라고 규정지으면서 혁명의 정당성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조선혁명선언」, 『단재 신채호전집』 하권, 36-37쪽)

그러면서 생존권 회복을 위한 혁명의 방법으로 내정독립이나 자치운동, 문화운동이나 준비론이나 외교론 등이 모두 착오에 의한 방법론이라고 부정하며, 오로지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과 폭력혁명만을 인정하였다. 그는 민중 직접 혁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특수 세력에 의한 혁명

9) 이호룡은 신채호의 아나키즘 수용을 3·1 운동 이후로 보고 있다. “아나키즘을 수용하면서 신채호는 국수주의를 극복해갔다. 신채호는 「국제연맹에 대한 감상」에서 모든 나라가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강조하면서 強力者에 대한 요구를 버릴 것을 역설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强者를 추구하던 1910년대의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아나키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호룡,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제177집, 2000.12, 79쪽.

은 또다시 권력 집중을 가져와 백성을 압제하는 전제정치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신채호의 민중혁명은 전(全)사회 민중에 의한 혁명이라야만,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고토쿠 슈스이가 『新見卯一朗 앞 서간』에서 주장한 ‘사회적 혁명’의 개념과 유사하다.¹⁰⁾ 신채호의 이러한 민중혁명론에 대해 이호룡은 민중의 직접행동에 의한 사회혁명론이라고 했다.¹¹⁾ 또한 신채호는 온 사회의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은 그 열기가 비하여 백만의 군대나 억만의 부를 지닌 제왕이나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이상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진 곧 특수 세력이 있어 그 소위 혁명이란 것은 특수 세력의 명칭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은 혁명에 대하여 다만 갑·을 양 세력 곧 신·구 양 상진의 숙인(孰仁)·숙폭(孰暴)·숙선(孰善)·숙악(孰惡)을 보아 그 향배를 정할 뿐이요, 직접의 관계가 없었다. (중략) 금일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민중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칭함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그 비등 팽창의 열도가 숫자상 강약 비교의 관념을 타파하며, 그 결과의 성과가 매양 전쟁학상의 정계에 일출하여 무전무병(無錢無兵)한 민중으로 백만의 군대와 억만의 부력(富力)을 가진 제왕도 타도하여 외구(外寇)도 구축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제일보는 민중 각오의 요구니라. (굵은 글씨체 필자, 이하 같음: 같은 글, 41쪽)

한편 폭력혁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삼일운동 실패의 예를 들면서 폭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혁명이 완수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삼일 운동의 만세 소리에 민중적 일치 의의가 창현하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민중·폭력’ 양자의 기일(其一)만 빠

10) 고토쿠 슈스이, 『幸徳秋水全集』 6권, 메이저문고, 1980, 454쪽.

윤일·남송우·손동주·서은선, 앞의 논문, 87-88쪽 참고.

11) 이호룡, 위의 논문, 96쪽.

지면 비록 굉렬(轟烈)장쾌한 거동이라도 또한 전뢰같이 수속(收束)하는 도다. (같은 글, 42쪽)

마지막으로 신채호의 민중혁명은 계급혁명의 요소가 강하다. 일반적으로 신채호를 논의할 때에는 민족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적 아나키스트로 규정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국권’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고, 조선 민족과 민중 해방 운동을 일본이라는 이족(異族)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계급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애를 썼다. 즉 일제 지배를 특수 계급의 지배, 약탈 경제제도와 사회적 불평등, 민중을 노예로 만드는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거론한 것은(같은 글, p.44), 권력의 중앙집중화에 저항하는 아나키즘 사상을 의식적으로 수용하려는 결의로 볼 수 있다. 이런 계급혁명의 요소는 1928년에 쓴 것으로 추정하는 「선언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선언문」에서는 “신민지 무산민중의 혈·피·육·골을 빨고, 찌고, 찢고, 물고, 깨물어 먹어 온 자본주의의 강도제국 야수군들은 지금에 그 창자가 꺾어지려 한다. 배가 터지려 한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닌 제국주의 그 자체를 없애야만 민중이 생존할 수 있다는 과격한 계급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건은 「조선혁명선언」에 담긴 아나키즘 사상의 특성에 대해 ① 단호한 전투의 선포로서 반(反)권위주의의 면모를 보이며, ②민중 독립운동을 민중 해방운동과 동일시하며, ③민중 봉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④혁명을 위한 파괴를 강조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¹²⁾

요약하면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힌 아나키즘 사상은 오로지 민중의 무장 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혁명 담론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혁명이 성공한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전망, 즉 무(無)권력과 생산물 공유의 원시적 공산사회의 평화로움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12) 박준건, 앞의 논문, 351-352쪽.

Ⅲ. 하늘(天)과 용(龍) 이미지의 전도(顛倒)

그동안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 관한 연구는 혁명 담론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각종 아나키즘 연구서나 신채호 연구 저술에는 빠짐없이 아나키즘 사상의 반영물로 분석되면서, 아나키스트 신채호·혁명사상가 신채호를 규명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는 아나키즘 사상의 전달이라는 소설 효용론적 측면만 부각하고 있고, 왜 『용과 용의 대격전』이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을까 하는 장르 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져 있다. 신채호가 평소 말한 바 있는 문학의 효용성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¹³⁾, 『용과 용의 대격전』은 또 하나의 아나키즘 문헌에 불과하여, 문학적 형상화, 소설장르의 독자성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그는 혁명 담론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전 소설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문학적 재미를 안겨주기 위해서 소설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도 어느 정도 성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1917년 이광수가 장편소설 『무정』에서 개인의 각성과 자유연애 사상을 전달하여, 『무정』은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로 자리매김하였다. 『무정』은 신교육 고취, 개인적 자각에서 출발한 민족적 자각, 개화로 인한 청년들의 빈민과 반성 등을 소상하게 묘사하여 전대(前代)와는 다른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1920년대 초기에는 김동인·염상섭·현진건 등이 등단하여 현실생활과 평범한 개인에게서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찾으려는 리얼리즘 문학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리얼리즘 문학이 한국의 근대소설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채호가 1928년에 쓴 『용과 용의 대격전』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리

13) 신지영, 「신채호의 담론 구성과 글쓰기의 역동성」, 『원우론집』 36호, 연세대 대학원 원우회, 2002, 135-137쪽 참고.

얼리즘 문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채호는 「낭객의 신년만필」(1925년)에서 문예물이 청년들에게 식민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을 하고서는¹⁴⁾, 망명지 북경에서 독자나 문단과 교류하는 일 없이 외롭게 『용과 용의 대격전』을 썼던 것이다.¹⁵⁾ 따라서 『용과 용의 대격전』은 당대의 리얼리즘 문학이 추구하던 인생의 진실이나 부조리한 현실, 개인의 자각 등을 형상화한 특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리얼리즘 문학이나 근대소설의 특성을 찾는 문학 비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문투의 문체나, 판소리의 아니리 형식도 등장하곤 하는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세소설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민 찬의 경우 이 소설을 근대소설로 보기보다는 조선시대 우화소설, 심성(心性)소설과 같은 전통 양식의 계승으로 보는 입장이다.¹⁶⁾ 그러나 『용과 용의 대격전』을 근대소설 이전의 우화소설, 심성소설의 범주에 넣기에는 그 주제로 볼 때,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이나 관습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강렬하다.

일단 『용과 용의 대격전』이 기존의 사회 체제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사상이나 민중혁명을 열망하는 혁명 담론을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즉 왕정체제를 인정하여 영웅·열녀·효녀를 찬미하던 중세의 유교정신과 단절했다는 점에서는, 근대의식을 충실히 반영한 근대소설로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텍스트를 서사 형식 측면에서 고찰할 때, 작가가 한국의 현실

14) 신채호, 「낭객의 신년만필」, 『단재 신채호전집』 하권, 31쪽.

15) 신채호, 위의 글, 32쪽 참고.

16) 민 찬, 「단재 소설의 경로와 전통의 자장(磁場)」, 『인문과학 논문집』 34호, 대전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2, 161쪽.

민 찬, 「단재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의 내용 및 형식」, 『어문연구』 48호, 어문연구학회, 2005, 369-371쪽 참고.

이밖에 이동재, 「단재 신채호 소설의 문학사적 계보와 변천과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266-267쪽 참고.

에 대하여 리얼한 묘사를 하는 대신,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顛覆)하기 위해, 과장적인 풍자적 서술과 미리와 드래곤이라는 환상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실제 현실과는 서사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형상화 방식에 대해 그 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하늘과 지배 이데올로기 전도(顛倒)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작가는 전제왕권이나 일제의 문화운동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체제를 부정하는 파괴적인 아나키즘 사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전통적 가치관을 뒤엎으려고 하는 풍자적 서술로 표출된다. 작가는 우선 당시 민중의 사상 체제의 정점에 있는 하늘(天)과 용(龍)의 관습적 이미지를 전도(顛倒)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황제와 왕은 하늘의 뜻, 곧 천명을 받들어 민중을 통치해 왔다. 원래 한국은 중국의 조공체제에 편입되어 있었다. 기무라 간에 의하면 황제국 중국의 주변국 통치는 법치(法治)의 시대가 덕치(德治)의 시대로 바뀌면서 그 형식과 실질적 내용도 달라졌다. 법치는 군국주의적 요소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여 부담이 커서, 명나라 시대부터는, 주변국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고 조공(朝貢)의 형식을 취하면, 하사물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덕치의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동아시아 정치체제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치의 시대는 진(秦)나라의 중국 통일과 봉건 체제 완성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황제는 바로 하늘(天), 즉 상제(上帝)였다. 한(漢)나라 때는 법치를 뒷받침할 군비와 강병의 부족으로, 유가(儒家)에 의해 황제들은 하늘의 명을 따르는 천자(天子)의 위치로 격하되면서 덕치의 체제로 바뀐 것이다.¹⁷⁾

아무튼 상제나 황제·왕의 이름으로 하늘의 명령은 시행되었는데, 그

17) 기무라 간 (김세덕 역),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 의식』, 산처럼, 2007, 33-70쪽 참고.

내용은 대체로 전제 왕권의 정치질서에 민중이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늘은 당시 민중에게는 곧 운명이며 숙명이었다. 천명을 받은 전제 왕권체제를 부정하고 뒤엎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교사상을 비롯한 각종 종교·사상의 가르침은 민중들에게 전제 왕권체제를 인정하고 동화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용과 용의 대격전』의 상제나 천궁의 지배는 단순히 과거의 전제왕권이나 당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무력 지배 혹은 문화정치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에게 하늘은 공자나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등 이들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모든 권위를 포괄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작가 신채호는 이 모든 체제가 민중을 구속하여,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제께서 받아본 즉 00 민중들이 야소를 죽인 뒤 미구에 공자·석가·마호메트· . . . 등 종교·도덕가 등을 때려 죽이고, 정치·법률학교·교과서 등 모든 지배자의 권리 옹호한 서적을 불지르고, 교당·정부·궁청·공청(公廳)·은행·회사· . . . 등 건물을 파괴하고, 과거의 사회제도를 일체 부인하고, 지상의 만물을 민중의 공유임을 선언하였다. (『용과 용의 대격전』,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부록, 이하 텍스트, 259-260쪽)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민중을 구속하는 모든 인간의 사상·종교 체제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규정하여 그 가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용과 용의 대격전』은 「조선혁명선언」의 혁명 담론보다 더욱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 체제의 모든 가치를 뒤엎어야만 혁명이 성공한다고 작가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민중이 생각하는 하늘의 이미지를 전도하고 훼손시켜서 그 가치가 전복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하늘(天)을 상징하는 상제(上帝)와 천궁(天宮)이 민중에게 절대

적인 운명이나 숙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가는 하늘이나 신이 자애롭게 민중의 고통을 보살펴주기는커녕, 민중을 압제하여 “소와 같이 코뚜레하고 굴레하고 채찍질하는” 장본인이며, 각종 종교·사상과 문화·학문을 활용하여 온갖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악신(惡神)으로 묘사하여 이미지를 전도(顛倒)한다.

“홍 그 약도 내가 써 보았지! 공자놈을 시키어 명분설을 지어 충신·열사의 명예를 후세에 끼치라고 속이며, 석가놈과 예수놈을 시켜 너희들이 남에게 고통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반항 없이 간과하면 죽어서 너희의 영혼이 천국으로, 연화대로 가리라고 속이었다. 이러한 마취약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천 년 동안이나 크게 그 약효를 보았더니, 지금에 는 그 약력도 다하여 그놈들이 자각하여 반역이니 혁명이니 하고 떠드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과학·문학 등이 크게 위력을 가진 때니, 다수한 과학자·문학자들을 피어다가 부자. 貴子-지배계급-의 주구를 만들어 학설로써 지배 계급의 권리를 옹호하며, 시와 소설로써 지배 계급의 장엄을 구가하면 될까 합니다.” (텍스트, 252쪽)

그래서 지상의 혁명으로 하늘이 몰락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작가는 과격한 아나키즘 세계관을 전달하면서 하늘의 몰락 과정을 과장되게 풍자한다. 상제가 지상의 반란으로 공물(供物)이 없을 것을 걱정하여, 지상의 인민에게서 동냥 바가지 얻을 희의를 여는 장면에서 희화성(戲畫性)은 극대화된다.

마침내 인민을 계속 압제하려던 하늘은 민중혁명으로 인해 급속도로 몰락한다. 그 조짐은 민중의 예수 살해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상제의 외아들인 야소기독이 0000지방의 농촌 야소 교당에서 상제의 도를 강연하더니, 불의에 동(同)지방 농민들이 “이 놈! 제 아비 이름을 팔아 일천구백 년 동안 험잡하여 먹었으면 무던할 것이지 오늘까지 무슨 개소리를 치고 다니느냐?”고, “일천구백 년 동안 빨아간 우리 인민의

피를 다 어디다 두었느냐?”고, “서양에서 험잡한 것도 적지 않을 터인데 왜 또 동양까지 건너 와 사기하느냐”고 (중략) (농민들이) 밭길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며, 말내(末氣)에 호미날로 찍어 야소기독의 전신이 곤죽이 되어 인제는 아주 부활할 수 없이 참사하고 말았다.....야소기독의 참사의 하수자들은 민중이지만 그 하수의 수범(首犯)은 드래곤이라 한다.
(텍스트, 255쪽)

텍스트에서 예수 참사 모티프는 성공적인 민중 직접 폭력혁명의 본보기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작가는 민중혁명을 방해하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를 상징화한 것이다. 민중의 수동적인 가치관을 전복하려는 아나키즘 사상의 문학적 메타포로서, 이 모티프에서 작가는 단순한 혁명 담론을 넘어서서 반(反)종교적인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상제는 혁명의 수괴 드래곤이 나타났다는 소리에 혼비백산 중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을 낼 정도로 허약한 존재가 되어, 명을 내려도 비가비(雨神)가 오지 않자 바람에 날려가, 마침내는 지상의 구멍에 숨어 있는 쥐로 몰락해 버린다.

상제가 매우 의혹하여 그 소리나는 곳을 가만가만 찾아본 적 초강수의 병숙이다. 상제가 대로하여 칼을 빼어 초강수 병을 치니 초강수는 어디 가고 불같이 번쩍 나와 천궁의 들보를 친다. 기둥을 친다. 지붕을 친다. 주춧돌을 부신다 하여, 딱-딱-꽝-딱-와르르 우르르-천궁 전체가 불지옥이 되었다.

(중략) 대세가 가고 보니 위권(威權)이 행할 쏘냐. 상제가 하릴없어 불을 피하여 궁문으로 나가다 맹풍의 휩쓸 바 되어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 (텍스트, 265쪽)

“건괘초효(乾卦初爻)의 ‘子’가 둔괘초효(遁卦初爻)의 ‘辰’으로 변하고 ‘辰’이 회두하여 ‘자(子)’를 극하였습니다. 辰은 용이요 자는 쥐니, 상제가 용(드래곤)의 난에 도망하여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어에 ‘천

개어자(天開於子)'라 하더니 오늘은 '天開於子'올시다. 쥐구멍에 가서 상제를 찾으시오. (중략) “억만 민중들은 고양이와 되고 과거 모든 세력자는 쥐가 되었다. 상제를 찾으려거든 쥐구멍으로 가 보아라”

천사 문득 도사의 집에 상제가 쥐구멍에 있으리란 말을 생각하고 울면서

“여보시오. 쥐를 잡지 말시오. 쥐는 곧 하늘에서 도망하여 온 상제 올시다.” (텍스트, 268쪽)

텍스트에서 하늘의 이미지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복하기 위해 사용한 풍자적 서술에 의해, 상제는 동냥할 바가지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쥐구멍으로 도망간 쥐로 변신해 버린다. 과장적이고 희화성(戲畫性)이 극대화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일종의 카니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학에서 카니발적인 특성을 언급한 이는 구(舊)소련의 바흐친이다. 그는 라블레의 소설을 연구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카니발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서양의 중세기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성행한 가면 축제 행사인 카니발은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즉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상적인 삶, 즉 비(非) 카니발적인 삶의 구조와 질서를 결정짓는 법률과 금지 그리고 제약들이 모두 정지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모든 계급구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모든 형태의 공포와 존경심과 경건함과 예의-다시 말해서 사회적-성직 계급의 불평등이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 그밖의 다른 형태의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다.”¹⁸⁾ 그래서 카니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세 종교의 독단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경건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채 그 특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 정치의 영역에서도, 봉건주의의 체제 밑에서 통제되어 있던 사회적-정치적 계급 구조는 카니

18) 바흐친,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4, 240쪽에서 재인용.

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¹⁹⁾

바흐친이 만든 용어인 ‘카니발화된 문학’이란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세 라블레의 소설에서 보듯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엄숙함과 공식적인 진지함을 해체하는 민중의 웃음과 연관이 있다.²⁰⁾ 즉 카니발적인 웃음은 독단적인 정치·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성성(대화성)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대화성의 원천인 카니발적 미학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²¹⁾

민중혁명으로 몰락하여 쥐가 된 상제를 묘사하는 모티프에서, 작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던 전통적인 가치관과 하늘의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고 있다. 또한 예수 참사 모티프에서도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 몸을 ‘곤죽’을 만들어버리는 민중을 등장시키면서 작가는 종교 사상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철저하게 전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복하는 『용과 용의 대격전』은 웃음을 자아내는 풍자적 서술 방식으로 민중에 의한 ‘직접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카니발적인 특성과 유사해 진다.

결과적으로 신채호는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상제가 민중을 착취하는 존재로 묘사하여 이미지를 전도하고, 마침내는 쥐로 몰락한다고 하는 풍자적 서술에 의해 혁명 담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전제왕권이나 일본 제국주의 외에도 사상과 종교적 근원까지 혁명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혁명 담론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 인간의 전 체제를 파괴해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는 신채호의 아나키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모하면서도 황당한 이상(理想)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이 소

19) 김옥동, 위의 책, 241쪽.

20) 웃음의 철학에 대해서는 김옥동, 위의 책, 243-246쪽 참고.

21) 카니발적 미학에 대해서는 권택영, 「카니발의 의미」, 김동욱 편,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269-277쪽 참고.

설 특유의 풍자성과 희화성(戲畫性)을 형성하여 문학적 미학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용과 용의 대격전』은 부분적으로는 전(前) 근대소설적인 서술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아나키즘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웃음으로 탈(脫) 권위적인 카니발적 미학을 형성하여 1920년대 한국 리얼리즘 소설과 마찬가지로 근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용(龍) 이미지의 분열과 드래곤의 형상 부재(不在)

전통적으로 용은 천자이자, 황제이며, 임금이었으며, 영웅을 상징하는 표상이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백성과 민중을 지배하는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용은 미리와 드래곤으로 이분(二分)되면서 그 이미지가 분열된다.

미리라는 명칭은 작가 신채호가 역사적 인물 궁예를 풍자한 소설인 「일목대왕(一目大王)」에서 등장한 바가 있다. 이때 미리는 천명을 받아 왕이 되는 고귀한 존재로서, 서기(瑞氣)를 띠고 탄생한다.

날 때에 무지개 같은 서기(瑞氣)가 돌고, 오색 구름 속에서 신인(神人)이 ‘미리’를 받으라고 외우거늘, 그 아이가 ‘예’하고 대답하고 하니, 아이의 울음 소리가 나므로 ‘예’라 이름하였다 하나, 열 살에 부모를 잃고 그 골 세달사에 가서 중이 되니, 스승이 그 얼굴과 재주를 기특히 여겨 선종(善宗)이란 이름을 주고 불경을 가르친 지 몇 해 못 되어, 불교의 종지와 불경의 깊은 뜻을 모두 풀어 알고, 다시 불교의 글을 섭렵하여 십삼 경의 대의도 통달하더라.

(「일목대왕」, 『단재 신채호문학전집』 하권, 320쪽)

그러나 작가는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미리를 하늘인 상제의 총복으로 그치도록 할뿐더러,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고기를 뜯어먹는 한낱 짐승의 이미지로 전복시킨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용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

는 파괴되고, 무산자 인민의 계급혁명을 초래하는 원흉으로 비하된다.

그러나 그 비는 소리가 미리님의 귀에는 들리지도 안하고 다만 그 가
런하고 모양 없는 재물만 미리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미리님이 꿀을
잔뜩 낸다.

이놈들, 정성을 내지 않고 행복을 찾는 놈들 죽어 보아라.”

하고 아가리를 딱 벌린다. (중략)

피를 짜 먹고, 살을 뜯어 먹고, 나중에는 뼈까지 바삭바삭 깨물어
먹는다. 먹히지 않으려면 탄알의 반이요, 감옥의 책임이다. 아, 지옥의
세계! 가련한 인민! (텍스트, 249쪽)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미리는 ‘성스런’ 임금이 되지 못하고, 실제 사람
을 잡아먹는 짐승의 이미지로 묘사되면서 괴기한 환상적 인물로 형상화
된 것이다. 한금윤에 의하면 ‘괴기스럽고 신이한 묘사’로서, 일종의 ‘신화
적 상상력’에 의한 환상이 된다.²²⁾ 이런 괴기한 인물 묘사는 지배계급의
잔인한 착취를 실감나게 하는 문학적 리얼리티를 부여한다.²³⁾ 그래서
민중혁명의 필요성은 증폭되어 마침내 미리는 혁명의 제물이 되고 만다.
즉 미리는 지상의 민중 반란을 진압하러 갔지만, 드래곤에게 패전하고
용신묘 속의 죽은 토우상(土偶像)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귀가 떨어
졌고, 눈이 빠졌고, 이마가 깨어졌다. 그 앞에는 한 점시 재물(祭物)도 놓
이지 않았으니, 드래곤에게 패전하고 이곳에 와서 퇴거한 것이 명백하
다.” (텍스트, 258쪽)

22) 한금윤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신채호의 신화적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
다. 즉 신채호의 미적인 특성은 신화적 상상력의 힘으로 환상성을 이루는 데 있
다는 것이다. -한금윤, 「신채호 소설의 미적특성 연구-〈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집, 1998, 146-147쪽 참고.

23) 한금윤은 이런 묘사 방식이 “기형적이고 괴상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 착취계
급의 잔혹스러움을 보여주는데, 고소설의 인물묘사 방식과 유사”하긴 하지만, “인
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괴기스러움과 잔혹함을 과장된 상황처리”로 보여주는 것에
서 신채호의 창작적인 개성이 있다고 하였다.-한금윤, 위의 논문, 149쪽 참고.

이처럼 미리의 짐승·토우 이미지는 독자에게 괴기한 환상적 리얼리티를 제공하면서, 민중혁명의 필요성과 확신감을 증폭시키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 1920년대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유형의 리얼리티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일제의 압제를 강조하여 혁명의 필요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식민지 상황을 리얼리즘 문학 이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미리를 괴기한 환상적인 인물로 비하하는 것과는 달리 미리의 쌍둥이 용인 드래곤에게는 혁명 영웅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드래곤은 작가 자신처럼 러시아 허무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나키스트 혁명가이다.

드래곤은 늘 희랍·라마 등지에 체재하여 드디어 서양의 용이 되어 늘 반역자·혁명자들과 교류하여 ‘혁명’·‘파괴’ 등 악회를 즐기어 종교나 도덕의 굴레를 받지 않는 고로 서양사에 대양 반당과 난적을 드래곤이라 별명하여 왔었다.

근세에 와서는 드래곤이 또 허무주의에 침혹하여, 더욱 격렬한 혁명 행위를 가지더니, 마침내 야소기독을 참살한 흉범이 된 것이다. 이 신문을 받은 천국이 궁신들이 비로소 미리와 드래곤이 본래 형제임을 알고 놀래지 않는 이 없었다. (텍스트, 259쪽)

그런데, 작가 신채호는 드래곤을 전제왕권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 영웅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미리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즉 드래곤을 부재(不在)하는 쪽으로 묘사하고 있다. 드래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하는 소리로만 존재한다. 그의 실체를 본 사람은 없다. 상제와 천궁의 무리도 보지를 못하였다. ‘지민신문(地民新聞)’에는 드래곤의 사진 대신 ‘0’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천국이 전멸되기 전에는 드래곤의 정체가 오직 ‘0’으로 표현될 뿐이다. 그러나 드래곤의 ‘0’은 수학상의 ‘0’과는 다르다. 수학상의 ‘0’에는 ‘0’

을 가하면 '0'이 될 뿐이지만 드래곤의 '0'은 1도 2도 3도 4도 내지 십·백·천·만 등 모든 숫자로 될 수 있다. 수자상의 '0'은 자리만 있고 실물은 없지만 드래곤의 '0'은 총도, 칼도, 불도, 벼락도 기타 모든 테러가 될 수 있다. 금일에는 드래곤이 '0'으로 표현되지만, 명일에는 드래곤의 대상의 적이 '0'으로 소멸되어 제국도 '0', 천국도 '0', 자본가도 '0', 기타 모든 지배 세력이 '0'으로 될 것이다. 모든 지배세력이 '0'으로 되는 때에는 드래곤의 정체적 건설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이다. (텍스트, 258쪽)

이렇게 드래곤은 '0'으로 표현되면서 부재하고 있다. 여기서 드래곤의 형상 부재는 일종의 문학적 메타포로서, 미리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괴기한 환상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과는 대립적으로 오직 드래곤은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257쪽)라는 소리만으로도, 민중혁명이 이루어지고 천궁은 파괴된다는 설정은 근대소설이 지향하는 리얼리티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신에 독자의 다양한(多義的)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문학적인 재미를 준다. 위의 인용 부분은 혁명이 성공되기 전까지는 드래곤의 형상은 알 수 없고, 혁명이 성공해야만 실체를 드러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텍스트의 결미에서 갑자기 상제나 천궁의 존재조차 과거 민중의 미신 조작의 결과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상제가 있다면 죽은 상제이다. 죽은 상제는 산 쥐새끼만도 못하다. 말하자면 상제도 멸망하여야 옳지, 기실 내나 네나 모두 상고(上古) 민중의 일시 미신의 조작이 아니었더냐. 민중의 조작으로 얼마나 민중의 해를 깨쳐 왔느냐. 상제 자신만 호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제의 제물 공물이다 핑계하고 민중의 돈을 헐뜯한 놈이 없었더냐” (텍스트, 269쪽)

작가의 위 서술에 대하여 김병민은 비판적이다. “여기서 작가는 비록 민중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중의 위력을 긍정하면서도 아직 민중을 우매한 존재로 보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작가가 ‘미신의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작가의 한계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소설가 신채호의 민중 인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텍스트는 민중혁명의 염원을 강렬히 전달하는 동시에, 민중의 미각성(未覺醒)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조선혁명선언」의 한 부분을 상기해 보자.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부자연·불합리한 민중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하는 유일 방법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실각한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 선구가 됨이 민중 각오의 제일로(路)니라.”²⁵⁾ 즉 혁명 영웅의 등장 보다는 민중의 각성이 선행해야만 혁명이 성취된다는 신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작가의 ‘미신 조작’ 서술을 드래곤의 형상 부재 모티프와 관련해서 본다면, 민중혁명 염원 이상의 문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즉 민중의 상제 조작이 없었다면, 권력의 집중이 없는 원시적 공산사회와 같은 사회라서 애당초 드래곤이 나타날 혁명 상황은 없을 것 이라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의 표출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수정은 드래곤의 부재에 대하여 “그렇다면 왜 드래곤의 정체 실현은 서사 내에 있지 않는가? ‘地民新聞’의 기사에서 밝히듯이 드래곤이 현실화되면 또 다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단한 자기부정이 아나키즘의 논리이기 때문에 서사의 결말에서 드래곤의 정체 실현을 미룬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텍스트의 화자(話者)는 아나키즘 혁명의 달성이나 실현 시점, 또다른 역혁명도 암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혁명의 점진적인 실현 과정 자체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²⁶⁾

24)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아침, 1989, 226쪽.

25) 신채호, 『단재 신채호문학전집』 하권, 41쪽.

26) 최수정, 「신채호의 《꿈하늘》, 《龍과 龍의 大激戰》 연구」, 『한양어문』 19집,

이런 논의를 참고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신채호는 우선 민중의 자각과 힘으로 민중 직접 폭력혁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드래곤의 형상 부재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텍스트 결미의 '미신 조작' 서술과 연관되면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 영웅보다는 민중의 자각으로 민중 직접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작가 자신의 신념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텍스트에서 혁명의 실천 과정만을 묘사하고, 혁명이 완수된 후의 상황은 「조선혁명선언」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혁명이 성공하여 모든 권력과 권위가 소멸된 원시적 공산사회를 염원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을 드래곤의 형상 부재 모티프로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신채호는 용의 이미지를 미리와 드래곤으로 이분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의 전복을 꾀하였다. 즉 미리를 민중을 뜯어먹는 짐승의 이미지로 격하하는 과기한 환상적 기법으로 민중혁명의 불가피성을 증폭시켰다. 드래곤의 형상 부재 모티프는 독자의 상상력을 촉발하면서 민중 직접혁명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혁명 완수 이후의 무권력사회를 염원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용과 용의 대격전』의 문학적 형상화는 리얼리즘 문학 이상의 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IV. 고토쿠 슈스이의 『기독말살론』과 용(龍) 이미지

신채호가 일본의 아나키스트 고토쿠 슈스이가 쓴 논설집 『장광설』의 에도 문학 평론 『기독말살론』(1911년)을 읽은 기록은 박준건의 논문에서 나타나 있다.²⁷⁾ 그러나 『기독말살론(基督抹殺論)』은 일본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번역은 물론이고, 그 실체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최근에 『고토쿠 슈스이 전집』 10권의 자료를 일부나마 번역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기독말살론』이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과 연관된다고 여겨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고토쿠 슈스이의 반(反)기독교 사상의 출발은 우선 1907년 8월 1일 上司延貴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듯이, 현실의 잘못을 지적하는 문학이 현실 타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민중들의 현실 회피를 도와주기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종교적 정서에서 기인한다.

옛날부터 이상과 실재는 쉽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인도 개혁도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약한 사람은 화염폭포에 가고, 강한 것은 개혁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후자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중략)

인간은 여전히 진보의 도중에 있다, 장애에 가로놓인 장애와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이 전투 중에 쾌락을 발견하고 얻는다. 이 전투를 견뎌내지 않으면 화염에 가서, 1,2천년 후의 진보의 극에 달한 시대에 환생하는 수밖에 없다.

현상이 괴롭기 때문에 위로를 천국에서 구하고, 종교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불쌍한 것은 없다, 인생 구제의 길은 도리에서 구하라, 학술에 구하고 도덕 감정에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들에 구한 결과로써, 나는 무정부적 공산주의의 혁명을 현세에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上司延貴』, 『행덕추수전집』 제9권, 326-328쪽)

고토쿠의 반종교적 정서는 ‘직접 행동’으로 민중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아나키스트로서의 반종교적인 신념이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종교적 신념은 점차 기독교를 겨냥한 반기독교론으로 발전하여 평론 『기독말살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다만 신채호의 『용과 용

27) 박준건, 앞의 논문, 351쪽.

의 대격전』에 나오는 예수 참사 모티프와의 차이는 예수 참사 모티프는 모든 사상·종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여겨 거부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기독말살론』의 경우 오로지 기독교 비판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토쿠는 뜻밖에 아나키즘적 혁명론을 배제하고,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과학적인 진화의 법칙에 어긋난 비과학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토쿠의 『기독말살론』 집필에 대해, 그를 제외한 일본 사회민주당의 주역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상 주도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토쿠는 천황 암살 미수사건, 소위 ‘대역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1911년 1월에 사형을 당했지만, 옥중에서 완성한 이 『기독말살론』은 사형 집행 후 8일 만에 발행되어 일본의 기독교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조작된 허구에 불과하고 어느 것 하나 독창적인 것이 없는 모방된 종교로서, 서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저술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²⁸⁾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토쿠 슈스이의 『기독말살론』에도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처럼 용이 등장한다. 고토쿠의 용은 성경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용인데, 악룡(惡龍) 더 나아가 사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고토쿠의 용은 하늘(天)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용이다.

미가엘이 태양의 천사인 것은 즉 헤라클레스가 그러한 것과 같고, 그들이 악룡(惡龍)과 싸워 이기는 것은, 더구나 헤라클레스가 이무기에 있어, 호루스가 요괴 타이온에 있어, 크리시나가 거대한 뱀에 있어서와 같이, 이집트 사람은 또 악마가 선과 대적하여 결국 패멸하고 만다고 믿

28)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과 고토쿠의 『그리스도말살론』의 저작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는 윤 일, 『明治三十年代に見られるイエス像—木下尚江と幸徳秋水の場合—』(『COMPARATIO』Vol.4, 2000년3월 p.xxv-xxvii. 참고.

고 있다. 즉 그들의 악마인 아리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더구나 묵시록 제 12장의 사탄과 같고,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피해 내려오는 것은 더욱이 묵시록 제 7장의 적룡(赤龍)과 같다.²⁹⁾ (『기독말살론』, 『행덕 추수전집』 제 8권, 이하 텍스트, 438쪽)

고토쿠의 『기독말살론』에 등장하는 용의 원형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드래곤) 이미지의 차용으로 보인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은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신약성서』(개역개정판) 요한계시록 제 12장 1절-9절)

성서적 해석에서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붉은 용은 살인적인 성질을 지니고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따라서 용은 기다리는 사탄으로 당시의 헤롯왕을 상징하기도 했다. 또한 용은 마귀, 사탄,

29) 위의 인용에서 고토쿠가 묵시록 제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제 12장의 잘못이며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관한 부분도 같은 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 近藤典彦(1990), 「<呼子と口笛>の口繪と『基督抹殺論』—秋水の遺著に重ねた啄木の天皇制批判—」, 『成城文芸』 제133호, 33쪽.

옛 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지 못하여 화가 난 사탄이, 예수를 따라 하늘에 올라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패배하여 영원히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³⁰⁾

결국 고토쿠의 묘사와 성서적 해석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토쿠의 용은 성경을 인용하여 기술한 것으로, 악룡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용 개념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천자나 황제·왕 혹은 영웅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고토쿠 선행 연구가들은 그의 ‘용’ 표현의 숨겨진 의미가 ‘천황 암살’이라고 대부분 보았다.³¹⁾ 그 중에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천황제 말살’이라는 흥미로운 견해가 있다.

결국 생식기숭배, 태양숭배와 동등의 『基督抹殺論』 중의 모티프가 여기에 상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목시록의 드래곤과 연결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그 모티프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한 『基督抹殺論』의 숨겨진 모티브, 즉 「천황제 말살론」임이 확실하다.³²⁾

고토쿠가 기독교의 모방적 설화를 비판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인용하여 기술한 ‘용’의 이미지가 연구가들에게 「천황제 말살론」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힌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신채호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전통적인 하늘(天)과 용의 이미지를 전도하고, 예수 참사 모티프를 넣는 등, 전제왕정이나 제국주의 뿐 아니라 모든 종교·사상까지 부정하는 과

30) 헨리D 할레이, 박양조 역, 『최신 성서 핸드북』, 기독교문사, 2006년 9월, 840-841쪽 참조.

31) 柳田泉(1955), 「明治に於ける社會主義文學の勃興と展開」, 『明治大正文學研究 15』, 25-26쪽.

近藤典彦(1990), 「〈呼子と口笛〉の口繪と『基督抹殺論』—秋水の遺著に重ねた啄木の天皇制批判—」, 『成城文芸』 제133호.

笠原芳光(2007), 『日本人のイエス觀』, 教文館 참고.

32) 近藤典彦, 앞의 논문, 33-35쪽.

격한 아나키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인데 비해, 고토쿠 슈스이는 신채호에게 영향을 준 아나키스트였지만, 『기독말살론』에서 그러지 못했다. 즉 신채호는 드래곤을 혁명 영웅으로 형상화하여 민중혁명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가 소멸되는 아나키즘적 세계를 염원하였지만, 고토쿠는 드래곤이 하늘(神)에게 패퇴하는 악룡으로 단순 묘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은 결국 태생적으로 문학 평론 『기독말살론』이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만큼 풍자적이고 환상적인 문학적 서술을 하지 못한다는 장르적 차이가 있는 데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고토쿠의 ‘직접 행동’ 아나키즘이 신채호처럼 폭력혁명에 토대를 둔 사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³³⁾

결국 고토쿠는 『基督抹殺論』에서 종교를 부정하고 혁명의 실천을 촉구하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결국은 도태되거나 진화되어 사라진다는 합리적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변화하는 것은 세계의 어느 곳이나 사람의 지혜의 발달에 따른 자연의 진화로 초자연의 하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현저히 뒤쳐진 것으로 어찌 그 독창을 자랑할 만한 것이라.”(텍스트, 432쪽)

다만 자연적으로 도태될 기독교를 ‘말살’하려한 것은 “사상계에 있어서 감화의 세력은 종래 신불교의 여러 종교와 비교하여 오히려 현저히 강대”(텍스트, 357쪽)해지는 기독교에 대한 위기의식이라고 밝히면서,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염려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토쿠 선행 연구에서 『기독말살론』의 숨겨진 모티브가 「황제 말살론」이라는 해석은 『용과 용의 대격전』의 드래곤과 비교했을 때, 고토쿠가 용을 성경의 사탄이며 패배의 상징으로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류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결국 고토쿠는 기독교를 자연도태시키기 위해 기독교의 비독창성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여, 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 사회진화론자의

33) 고토쿠의 ‘직접 행동’ 내용은 윤일·남송우·손동주·서은선, 앞의 논문, 85-86쪽 참고.

모습을 보이고 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여러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죽기 직전의 고토쿠 슈스이에게는 『기독말살론』의 악룡의 기술에서 보듯이, 기독교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삼아 타도하려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토쿠가 죽은 후 20여 년 동안 일제 지배를 겪고 있던 신채호는 『기독말살론』의 패배한 악룡 이미지에서 드래곤을 추출해 내어,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데 성공하는 민중혁명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V. 마무리

이상으로 신채호의 아나키즘 사상이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서술 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아나키즘 사상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요체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중앙집중적 권력 체제나 조직 등의 파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논리의 토대가 되었다. 신채호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 공명하면서도, 러시아 허무주의자로부터 출발한 암살 행위를 아나키즘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암살행위를 반(反)제국주의의 논리로 수용하였고, 이어서 민중혁명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1923년)에서 밝힌 아나키즘 사상은 오로지 민중의 무장 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혁명 담론으로 나타난다.

신채호는 혁명 담론을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1928년)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서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하늘(天)과 용의 이미지를 전

도(顛倒)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복하려고 하였다. 텍스트 속 하늘은 전제왕정, 일본 제국주의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사상·종교·문화 등을 포괄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된다. 그는 풍자적 서술로 하늘을 상징하는 상제를 비하하고 희화화하였다. 민중혁명으로 상제는 쥐로 몰락하였고, 예수는 살해되었다. 일종의 문학적 메타포에 해당되지만, 혁명 담론을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복하는 『용과 용의 대격전』의 서술 방식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풍자적 서술과 민중에 의한 ‘직접 행동’의 강조는 카니발적인 미학과 유사한 것으로, 근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용도 ‘미리’와 ‘드래곤’으로 분열시켜 전통적인 이미지를 전도하였다. 원래 미리는 왕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지만, 인민을 뜯어먹은 짐승과 같은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괴기한 환상적 리얼리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드래곤은 혁명 영웅의 이미지를 부여받지만, 그는 텍스트 속에서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하는 소리로만 존재하지, 형상은 부재(不在)한다. 부재하는 드래곤은 ‘0’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드래곤의 형상 부재는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 영웅보다도 민중의 자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을 보여주는 문학적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권력이나 권위의 소멸을 염원하는 아나키즘적 세계관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토쿠 슈스이도 반종교적 입장을 취하였고, 특히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신채호와 유사하다. 고토쿠는 평론 『기독교 말살론』(1911년)에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염려하여 기독교 말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촉구하는 아나키스트적인 입장이 아니라, 진화론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사회진화론자의 입장을 보이는 데 그쳤다. 따라서 신채호의 드래곤처럼 혁명 영웅으로서의 형상화를 하지 못하였는데, 고토쿠가 기술하고 있는 ‘용’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악룡’ 혹은 ‘사탄’의 패배한 이미지를 그대로 차

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주제어 : 신채호 · 고토쿠 슈스이 · 용과 용의 대격전 · 기독교말살론 · 조선
혁명선언 · 아나키즘 · 민중혁명 · 민중 직접 폭력혁명 · 하늘 ·
용 이미지의 전도 · 예수 참사 · 카니발적 미학

참고문헌

1. 텍스트

- 고토쿠 슈스이, 『幸徳秋水全集』 전10권, 메이지문고, 1980.
신채호, 『단재 신채호전집』 전4권(개정판), 형설출판사, 1985.
_____, 『단재 신채호전집』 하권(개정판), 형설출판사, 1995.
_____, 『용와 용의 대격전』,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부록, 아침, 1989.

2. 논문

- 권택영, 「카니발의 의미」, 김동욱 편,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269-277쪽 참고.
- 近藤典彦, 「〈呼子と口笛〉の口繪と『基督抹殺論』—秋水の遺著に重ねた啄木の天皇制批判—」, 『成城文芸』 제133호, 1990, 33쪽.
- 김갑수, 「아나키즘의 윤리관과 전통 윤리관의 만남 및 변용」, 『시대와 철학』 제18권 1호, 한국철학사상회, 2007.
- 柳田泉(1955), 「明治に於ける社會主義文學の勃興と展開」, 『明治大正文學研究 15』, 25-26쪽.
- 민 찬, 「단재 소설의 경로와 전통의 자장(磁場)」, 『인문과학 논문집』 34호, 대전대 인문과학 연구소, 2002, 161쪽.
- _____, 「단재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의 내용 및 형식」, 『어문연구』 48호, 어문연구학회 2005, 369-371쪽.
- 박준건, 「해방전 일본을 통한 서양사회사상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16집 1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351-362쪽.
- 신지영, 「신채호의 담론 구성과 글쓰기의 역동성」, 『원우론집』 36호, 연세대 대학원 원우회, 2002, 135-137쪽.

- 윤 일·남송우·손동주·서은선, 「근대 일본과 한국의 사회진화론과 아나키즘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3, 85-86쪽, 87-88쪽.
- 윤 일, 「明治三十年代に見られるイエス像—木下尚江と幸徳秋水の場合—」, 『COMPARATIO』 Vol.4, 2000. 3, pp.xxv-xxvii.
- 이동재, 「단재 신채호 소설의 문학사적 계보와 변천과정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266-267쪽.
- 이호룡,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제177집, 2000.12. 79쪽.
-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 연구』 제39집, 중국사학회, 2005. 12. 235쪽.
- 한금윤, 「신채호 소설의 미적특성 연구-〈꿈하늘〉과 〈용과 용의 대격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집, 1998, 146-147쪽, 149쪽.

3. 단행본

- 기무라 간,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의식』, 산치럼, 2007, 33-70쪽.
-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아침, 1989, 226쪽.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4, 240쪽, 243-246쪽.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2, 92-93쪽.
-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 아카데미, 1996.
-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25-26쪽.
- 최기영, 『식민지 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003.
- 헨리 H 할레이 (박양조 역), 『최신 성서 핸드북』, 기독교문사, 2006년 9월, 840-841쪽.

<Abstracts>

Literary Image for Sin Chae-ho's Anarchism
-Upsetting the image of Korean traditional god and
the Dragon

Seo, Eun-Seon · Yoon, Il · Nam, Song-Woo · Son Dong-Ju

On the one hand Sin Chae-ho agreed with Kropotkin's mutualism, but on the other hand accepted assassination from Russian nihilists' idea as Anarchism. He accepted assassination as anti-imperialism and developed it into a theory of People's Revolution. We can see the theory of People's Revolution in th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Joseon'(1923), which had a trait of a struggle of classes as a direct violence revolution of people.

He expressed the People's Revolution literarily in the novel of 'Miri vs Dragon'(1928). If we read the book in detail, we can find that he tried to break the traditional values, upsetting the image of the god of Korea and the dragon. The god of Korea in the text stood for not only monarchy and Japanese imperialism but also authoritative ideas and religions. He degraded and caricatured Sangje who represented Korean traditional god. In his writing Sangje degenerated into a mouse and Jesus was murdered by the popular revolution. As a kind of literary metaphor, it showed aesthetics which contained humor and ridicule for authoritative ideas and religions, and his opinion of the popular revolution.

Also, he classified the Yong into the Miri and the Dragon to express the traditional image. The Miri had meant a king but the author made it an image of a monster that squeezed the people. And champion of revolution as he was, the Dragon existed by the sound of, "He has come, he has come, the Dragon has come!" in the text, but he actually did not exist. The Dragon was expressed as '0'. The absence of the Dragon showed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self-awakening of nation should be needed before the popular revolution. It is a kind of literary metaphor. Even though Kotoku Shusui who had influenced Sin Chae-ho's Anarchism wrote a book about a dragon, his expression of a dragon was not better than Sin Chae-ho's.

Key Word : Shin Chae-Ho · Kotoku Shusui · 'Miri vs Dragon' ·
 Anarchism · the People's Revolution · upsetting the image
 · a tragic death of Jesus